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여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미**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정종석***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용길****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전쟁취재를 했던 현직 기자들을 만나 전쟁취재 활동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구한다.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는 50년 이상 되었지만, 취재과정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취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전쟁특파원들은 한국 언론들이 전쟁취재를 위한 체계적 준비과정 없이 관습적으로 기자를 파견한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취재 기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 경험만을 토대로 전쟁 상황을 생색내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취재 경험이 적은 기자들을 갈등 지역에 파견하는 것도 전쟁취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언론들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생생한 취재활동을 벌이기 위해 중동지역의 국제전문가와 분쟁 전문기자 또는 특파원을 두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쟁 저널리즘, 선전, 임베드 프로그램, 이라크전쟁, 걸프전

* ifsc334@nypi.re.kr

** klavenda@empal.com

*** elton@dongatv.com

**** harrison@donga.com

1. 들어가는 말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이라크전쟁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은 중요한 이슈였다. 전쟁은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이 무력충돌로 나타나는 국제분쟁의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송종길, 2003). 하지만 언론은 전쟁을 ‘보도’하기보다는 전쟁을 ‘선전’하는 도구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창호, 2006 참조). 즉, 전쟁당사국들은 여론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내내 미 국방부와 언론은 전쟁의 참혹함을 감추기 위해 전쟁을 가급적이면 피 흘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희생자 이미지나 전쟁의 잔혹성은 배제됐다. 또한 전쟁에 사용된 최첨단 무기 소개와 상세한 군사작전 설명 등 기술적 우위가 강조됐고 반전 시위나 반응, 미국의 전략적·군사적 이익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Corcoran, 1992; Dickson, 1994; Kellner, 1993). 이처럼 위기 시 언론은 정부 정책의 독립적인 감시견 역할을 하기보다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권력집단을 옹호하는 ‘동원’ 기능을 수행했다(Bloch & Lehman-Wilzig, 2002).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국가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입장을 팽팽히 맞서도록 만든다. 정부는 전쟁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기밀주의를 취하게 되나 한편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서정우, 1991).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작전상의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언론보도 통제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전쟁의 참상에 대한 심층보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많은 오보방송이 있었다(송종길, 2003). 특히 CNN을 비롯한 미국의 상업방송사들은 미국의 용맹성이나 기술의 잠재성, 전쟁의 흥미성이나 자극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전쟁 보도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 참조). 즉, 1) 전황 중심의 스포츠 중계식 보도, 2) 예측/추측 중심의 보도와 불확실한

보도출처의 사용, 3) CNN 등 전쟁당사국인 미국의 시각 반영, 4) 심층적 보도의 부족, 5) 게임식 화면으로 전쟁을 극화, 6) 지나치게 감상적인 영상편집 등 이런 요소들은 전쟁의 사실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 현실을 더욱 선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국익중심의 보도와 언론통제 때문에 전통적으로 언론이 추구해온 가치인 객관성, 중립성, 균형성은 전쟁보도에서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전쟁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됐지만 기자들이 어떤 여건과 환경 하에서 전쟁 상황을 취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스스로가 전쟁취재의 문제점으로 어떤 것을 느끼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쟁 취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심층적 연구도 부족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쟁취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전쟁취재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전쟁취재 역사

1) 세계의 전쟁취재 역사

세계 최초의 전쟁보도는 스페인 내전(1835~1837)을 취재한 영국 『모닝포스트』의 찰스 루이스 기자에 의해 이뤄졌다(안병찬, 1999). 대중매체를 통해 전쟁 스토리가 일반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전달된 것은 크림전쟁(Crimean War, 1853~1856) 때부터다. 『타임스』를 비롯한 영국의 신문들은 영국과 러시아 간의 크림전쟁 취재를 위해 전쟁특파원을 보내기 시작했고 특파원들은 편지 형식으로 본국의 신문사에 기사를 송고했다. 당시 『타임스』는 처음으로 자사 비용으로 기자를 전선에 파견했으며, 전쟁을 취재하고 있던 다른 취재기자들 가운데 독보적이고 활발한 취재활동을 벌였다. 또 이 전쟁에 최초로 로저 펜턴(Roger Fenton)이라는 사진사가 투입되기도 했다. 『타임스』 기자인

윌리엄 하워드 러셀은 영국정부가 제안한 휴전일을 러시아 정부가 받아들여기로 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으나 영국군 사령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사병들의 고통과 참상을 폭로해 군부 사이와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미국 내전(America Civil War, 1861~1865) 때는 처음으로 대규모 기자단이 전선에 파견되었다. 북군(Union) 쪽에서만도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전선에 몰렸다. 이에 따라 언론통제도 강화되었는데 북군 쪽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전쟁보도에 불만을 품고 당시 전쟁을 보도했던 『시카고 타임스』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특히 스탠턴(Stanton)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보도자료 외의 기사게재는 엄격히 금지됐고 이를 어긴 기자들은 구금 등 혹독한 통제를 당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전은 언론통제가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1898년 스페인-아메리카전쟁(Spanish-American War)은 허스트 계열의 『뉴욕저널』과 폴리처 계열의 『뉴욕월드』가 정부의 통제 없이 과열 경쟁을 벌임으로써 언론이 앞장서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선정성이 짙었다(Streitmatter, 1997). 『뉴욕저널』의 경우 전쟁 전 15만 부에 불과했던 발행부수가 전쟁 이후 80만 부로 대폭 증가했다. 이 시기는 특히 전쟁보도가 선정주의로 흘러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쟁취재기자의 황금기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후 1940년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미국은 전쟁특파원(war correspondent)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자들이 장교군복을 입고 마치 군무원처럼 전선을 돌아다니도록 했으며, 독일은 이에 전쟁취재기자들을 선전국(Propaganda Division)에 배치해 군사훈련을 시킨 뒤 상황이 발생하면 전투를 하도록 했다(정문태, 2004). 세계 각국의 특파원들이 모여들어 전쟁을 취재하게 되자 연합군은 1944년 작전계획과 의도, 아군의 피해, 부대 위치 등의 보도를 금지하는 검열규정을 만들었다(안병찬, 1999).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은 역사상 최대 보도였다. 관련 기사가 차지한 지면은 상당한 분량이었고, 각국에서 모여든 전쟁기자의 수도 전시 초기에 238명에 달했다(변동현·박홍수·김영기, 2000). 전쟁 초기 맥아더 장군은 언론

의 취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참전하면서부터 보도자문국(Press Advisory Division)을 설치해 모든 언론관련 자료를 미8군 보도보안국(Press Security Division)과 도쿄 극동사령부(Far Eastern Command)를 거치도록 명령했다.

이후 베트남전쟁 때부터는 방송매체가 전쟁보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전쟁은 전쟁취재기자가 최초로 자유롭게 전선을 취재해, 언론사들이 최초로 전쟁보도의 독립성을 획득한 전쟁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영상물 촬영과 취재가 본격화되면서 시각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쟁보도의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러한 영상보도는 미국 내 반전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여론 확산을 통해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왔다.¹⁾ 베트남 전쟁은 단일 규모 전쟁으로 가장 많은 전쟁취재기자가 전선에 파견됐고, 가장 많은 기자가 희생당한 전쟁이기도 했다. 1964년 40여 명에 지나지 않던 전선 기자 수가 1965년 미군이 개입하면서 크게 늘어나 1970년대 들어서는 2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등장한 전쟁취재기자들은 언론에 비협조적으로 변한 군인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아 호텔 커피숍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기도 했다. 1982년 영국의 포클랜드전쟁(Falklands War) 때는 기자 29명만을 전함에 태워 제한적인 함상취재만이 허용됐는데, 미국은 이러한 언론통제술을 참고해 1983년 그라나다(Grenada) 침공 작전을 전쟁취재기자 없이 수행했다. 또한 1989년 파나마(Panama) 침공 때는 미군에 우호적인 10여 개 언론사 기자들만 군용기로 태웠으나 기자들의 현장 접근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기자들의 자유로운 전쟁취재를 제한했다. 특히 이 전쟁의 언론보도 통제는 심했다.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고 얼마나 유혈적이었으며 얼마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1)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네트워크 방송 CBS의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는 북베트남 정글지역을 공격하는 폭격기에 탑승, 전쟁을 생방송했다. 취재를 마치고 온 그는 베트남전쟁이 무의미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의 끔찍함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CBS는 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은 들끓게 됐다.

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정부의 보도 통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안민호, 2003).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은 이라크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을 살해했으나 국제 언론들은 이 전쟁을 비판하지 않았고 첨단 군 시설을 흥미롭게 보도하여 미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언론은 보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군대이동이나 군사작전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전쟁 보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한 연합군의 정보국으로 보내졌고 보안에 민감한 내용들은 검열됐다. 또한 기자들은 장교들의 호위 속에서만 군대를 방문해 취재하는 것이 허용됐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임베드 프로그램(embed program)²⁾에 참여한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전쟁 상황을 취재했다.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TV의 증가, 인터넷의 발달, 수많은 개인미디어의 확산으로 전쟁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도 함께 전개된 셈이었다. 그러나 개인 미디어를 제외한 주류 방송사들의 경쟁 결과는 전쟁보도 시간의 확대로 나타났고, 그 시간을 보다 매력적이고 손쉽게 메우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 가상 스튜디오 작업들이 이루어졌다(안민호, 2003). 결국 이러한 작업은 시청률 경쟁을 위해 전쟁을 게임화하고 오락화했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미 군사진영은 미군의 영웅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라크의 강한 선전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임베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

2) 이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언론인 600여 명을 미군에 동승시켜 전쟁을 취재케 한 전략으로 미 당국은 ‘취재규칙(Ground Rules)’을 적용해 취재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즉, 보안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적에 대한 위장잡임, 조준, 직접 또는 간접적 공격, 첩보활동, 또는 안보수단에 관련된 정보, 적의 전쟁포로를 보여주는 영상 또는 사진 또는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행위, 공식적으로 제공된 대략적 사상자 수치, 제한범위 내에서 기자들이 목격한 사상자 현황, 구금하거나 붙잡힌 적국 관리의 모습,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전 및 군사행동에 대해 참가병력 규모를 대략적인 언어로 보도하는 것, 공격 전 군 작전목표와 대상의 위치와 이에 대한 정보, 수행하는 작전 및 비행기 종류에 대한 정확한 수치 등에 대한 취재 제한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원하는 기자들의 불만을 샀다.

한 기자들의 보도는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전달하기보다 미군의 전쟁노력과 전투과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창호, 2006). 당시 미 해병대에 배속돼 취재활동을 벌였던 NPR(National Public Radio) 특파원 존 버넷(John Burnett)은 폭격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아랍어 통역원의 부족으로 미군 위주의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Burnett & Arnot, 2003). 결국 저널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언론검열로 알려진 임베드 프로그램으로 전쟁취재기자들은 미군에 우호적인 측면을 보도했고 미국의 군사적 관점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2)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 이상이 지났으나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를 기술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일부 자료를 토대³⁾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중군기자’란 이름으로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는 시작됐다. 초창기 전쟁취재는 언론사 기자가 국방부를 통해 일정 훈련을 거친 뒤 국방장관 명의의 수료확인을 받아야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다. 1949년 10월 4일 태릉 육사대에서 10여 일간 훈련을 받은 20여명의 군 출입기자에게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중군기자 수료증’이 발급되고 이때부터 ‘중군기자’라는 공식 명칭이 주어졌다. 당시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각 신문사 출신 20여 명의 기자들이 중군기자 1기로 훈련을 수료했고, 1950년 2월 10여 명의 기자가 12일간 훈련을 받고 중군기자 2기로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지리산에 남아 있던 일부 반란군들을 취재하기도 했고, 남파된 무장간첩의 태백산, 소백산 준동에 중군하여 취재했다. 또 1950년 이전에 있었던 북한군과의 송악산 전투(1949년 5월), 웅진전투(1949년 5월), 은파산 전투(1949년 10월)에 중군하여 취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6·25 전쟁 발발 때는 신문사가 피난지를 따라 옮겨 다니기도 했고,

3) 1949년부터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은 이해복(2003)에서 대부분 인용했다.

판문점 근처에 기자들의 임시 취재천막이 마련됐을 때는 천막에서 취재와 기사작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취재 때는 공보장교의 검열이 심했으며, 국방부 정훈국장 명의로 ‘언론기관 및 종군기자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1952년 4월 23일에는 역시 국방부 정훈국장 명의로 20개 조항 총칙에 13개 기사취급 기준이 내려져 매우 까다로운 취재준칙을 준수해야만 했다. 1950년을 전후로 낙동강전선과 인천상륙작전을 취재했던 성두경이라는 사진기자의 기록도 남아 있다. 이견중, 최계복 등과 함께 활동하며 대구현 병사령부 ‘사정보’에 소속되어 보도사진을 찍었던 성두경은 1953년경 주간신문 ‘동방 사진뉴스’를 창간하여 사진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보도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전쟁취재는 최초로 방송장비가 동원된 베트남전쟁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당시 비전투부대에 10여 명의 전쟁취재기자가 파견됐고 이어 전투 병력에 가세해 기자들이 파견됐다(김우성, 2005 참조). 당시 전쟁을 취재한 기자들은 한국정부의 사전검열과 보도제한, 취재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그들은 주로 베트남 정부나 미국정부가 발표한 전쟁관련 정보에 의존했다. 또한 언어장벽으로 월남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편집자의 압력에 못 이겨 한국군 병사 쪽에 취재의 비중을 뒀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보도는 한국군의 전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무용담 위주의 취재가 많았다.

2003년 발생한 이라크 전쟁 때는 국내에서 총 95명(신문사와 통신사 24명, 방송사 71명)의 기자단이 파견됐다.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기자들은 쿠웨이트를 통해 제한적인 접근밖에 허용되지 않아 바그다드 접근은 어려웠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기자들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쿠웨이트에서 외곽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이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가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미 5군단 지원사령부에 배속됐으며 중앙일보 기자는 제5군단 16전투지원단에 배속돼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남재일, 2004).

3. 전쟁과 언론

1) 국익중심의 보도

국익⁵⁾은 미디어가 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을 보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ennett, 1990; Dickson, 1992, 1994, Yang, 2003). 즉, 주류 미디어는 국제 갈등을 보도할 때 정부의 대외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양(Yang, 2003)의 주장처럼 저널리스트는 그들의 나라의 궁극적 이해에 기초해 국제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한다. 따라서 모든 뉴스가치 중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가 전쟁보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Gans, 1979). 걸프전을 분석한 오헤퍼난(O’Heffernan, 1993)에 따르면, 미국 텔레비전은 걸프전을 보도할 때 미국의 군사작전과 정책에 대해 거의 문제 삼지 않았고 지나치게 애국주의적이었다. 미국 미디어는 부시 행정부와 국방부의 관점을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폭격의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무고한 이라크 시민의 고통이나 비군사적 시설의 파괴에 대해서는 소홀했다(Paletz, 1994). 디슨(Dickson, 1994)이 지적하듯 미 언론은 국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주류 언론의 전쟁 보도 시 반전운동과 여론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Reese & Buckalew, 1995).

이러한 국익중심의 보도는 9.11 테러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유세경과 김미라(2002)는 9.11 테러에 대한 미국 <뉴욕타임스>, 한국 <조선일보>,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를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악에 대한 전쟁행위와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이란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시켰다. 이 신문들은 연일 비행기 충돌장면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대피하는 시민들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테러의

5) 국익은 국가안보와 안전의 유지, 경제적 이해 추구, 영토보전과 유지확대, 국민적 사명감, 국가적 영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종인, 2006).

잔학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번 테러가 선을 상징하는 미국에 대한 악의 전쟁 행위라는 틀에 입각, 현실을 구성했다. 반면 <인민일보>의 경우 이 사건을 비교적 축소 보도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보복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뉴스 틀을 견지했다. 이처럼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국익에 충실했고 테러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안병찬(2003)은 1980년 발생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취재상황을 회고하면서 국익이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전쟁이 확전 일로이던 어느 날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다. 기획실장이 각사 외신부장을 초청하여 이란-이라크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실장은 한국은 이란 측에도 다량의 군복과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이런 경제적 관계 때문에 언론은 이 전쟁에서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20쪽).

이어 그는 베트남 전쟁 때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관한 모든 사실과 진실이 철저하게 통제됐다고 말한다. 2004년 추진된 이라크파병과 관련해서도 파병반대 시위가 끊이질 않았지만 주류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따랐다. 즉, 조선, 중앙, 동아는 국익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속히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박종인, 2006). 이처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는 전쟁과 같은 국제 갈등 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서구 언론 의존 관행

한국 언론의 국제뉴스는 대부분 해외언론의 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남재일, 2004). 특히 한국 언론은 전쟁보도 시 CNN과 Fox News 등 서방 언론들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인성, 2004). 남재일(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신문은 이라크 전쟁을 보도할 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언론의 인용 비율이 75~80%에 달했고

아랍 언론의 인용은 10%안팎에 머물렀다. 최효찬(2002)은 9.11 테러 이후 전개된 테러전쟁 국면을 보도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미국적 시각의 일방적 수용과 전쟁을 부추기는 선정적 보도로 요약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 중심주의, 외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무리한 추측보도, 피해규모 부풀리기 등 국제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한국 언론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 테러를 진주만 공습에 비유하고 전쟁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거나 서방세계와 이슬람과의 문명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식의 전형적인 부풀리기 보도도 많았다. 방송 뉴스 역시 일방적으로 미국의 시각만을 수용, 보도함으로써 편향된 보도로 일관됐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훈련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계속 내보낸 것도 테러의 잔학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반면, 대안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지나치게 반전 반미적인 색채를 띠었다(백선기, 2005). 따라서 이라크전 반대시위, 명분 없는 전쟁비판, 파병반대 시위 등이 보도의 주를 이뤄 국내의 반전분위기와 이러한 분위기를 고취하려는 노력이 엿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국내의 시민들의 반응과 의견형성 및 행동추구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라크 현지로부터 소식을 전하지 않고 2차적으로 뉴스를 외부정보원에서 얻은 이후, 그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취재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국제적 정세를 직접 취재,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의 진실에 육박하는 보도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의견과 주장을 인터넷 매체 안에 집결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행동추구 및 현실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뉴스취재에 있어 좀 더 현장성을 갖춰야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3) 언론통제

전쟁 상황에서 언론통제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사실, 베트남전쟁 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전선을 비교적 마음대로 누비고 다닐 수 있었다. 즉, 베트남 전쟁은 군사적 검열이나 통제가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었다

(Streitmatter, 1997). 이 때문에 베트남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 언론보도는 전쟁에 비판적이었고 전쟁비용과 민간인 희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 행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보도 논조를 나타냈다. 이후 미국정부는 베트남전을 교훈 삼아 전쟁 시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1991년 걸프전 때는 보안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군대이동이나 군사작전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할 수 없었다. 모든 군사 리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한 연합군의 정보국으로 보내졌고 보안에 민감한 내용들은 검열됐다. 또한 기자들은 장교들의 호위속에서만 군대를 방문 취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통제 때문에 언론은 군사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연합군에 유리한 전쟁정보가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라크 전쟁 때는 임베드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언론통제 전략이 마련돼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관련해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기자들은 군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생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묘사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임베드 프로그램의 주요 장점이라고 말한다(Smith, 2003).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대상인 군인과 너무 밀접히 접촉돼 있어 객관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즉, 기자들이 뉴스 정보원과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군의 대변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군 쪽에서만 전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편향보도의 온상이 될 수 있다(안병찬, 2003).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 BBC와 독일 방송 기자들은 임베드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리스(Reese, 2004)는 이 프로그램은 저널리스트와 취재 대상 간의 강한 의존 관계를 초래한 일종의 통제 방식이었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연합군에 동승해 활동했던 기자들의 보도내용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들의 보도와 많이 달랐다는 지적이다(Fahmy & Johnson, 2005). 즉, 전자는 이라크의 약한 모습,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이라크인의 모습, 후세인 체제 붕괴 후의 이라크 시민들의 환호, 연합군과 이라크 시민 간의 다정한 교감 등 전쟁을 성공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반면 후자는 연합군 전쟁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미국의도에 대한 불신,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미국에

대한 분노를 전달, 부정적으로 전쟁을 묘사했다.

이처럼 주류 언론의 전쟁보도는 지나친 국익중심의 보도와 언론통제로 전쟁의 참상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여건과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전쟁취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⁶⁾

연구문제 1 :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여건과 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환경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4 :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전쟁취재경험이 있는 국내 방송사 및 신문사 기자 총 11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방식은 미리 작성된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순서에 맞게 인터뷰를 실시하는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을 선택했다. 우선, 소속 언론사, 부서, 기자경력, 전쟁취재경험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전쟁취재에 필요한 장비와 경비, 보험, 비자, 현지 교통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질문했다. 그 다음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사나 뉴스를 본사에 전달했는지와 전쟁 당사국의 통제로 어떤 갈등을 빚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전쟁취재 과정에서 어떤 애로와

6) 이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종군기자’ ‘전시기자’ ‘전쟁기자’ 등의 명칭들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쟁취재기자’로 통일하기로 한다.

7) 이 같은 질문의 선택은 전쟁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선택됐다.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

구분	소속 매체	소속 부서	기자경력	전쟁취재 경험	임베드 프로그램 참여 여부
A(여)	신문사	국제부	14년	1회	참여 안 함
B(남)	신문사	사진부	7년	1회	참여 안 함
C(여)	방송사	국제부	19년	4회	참여 안 함
D(남)	신문사	정치부	19년	1회	참여함
E(남)	신문사	국제부	16년	1회	참여함
F(남)	방송사	국제팀	10년	1회	참여 안 함
G(남)	신문사	국제부	10년	2회	참여함
H(남)	방송사	영상취재팀	5년	3회	참여 안 함
I(남)	신문사	국제부	5년	1회	참여 안 함
J(남)	신문사	사진부	5년	1회	참여 안 함
K(남)	신문사	기획팀	11년	1회	참여 안 함

문제를 겪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언론의 취재여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했고 마지막으로 전쟁취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응답자당 인터뷰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됐다. 응답자들의 사생활을 고려, 인터뷰한 기자들의 실명 대신 편의상 임의로 영문알파벳을 붙여 구분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녹취했으며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면접 대상자들의 선별은 유의적 표집을 사용했다. 우선 국내 신문사 및 방송사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취재기자들 가운데 전쟁취재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기자를 선별했다. 이 가운데 연구자들과 친분이 있거나 전쟁취재로 잘 알려진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에는 전쟁취재를 위해 소속 언론사의 허가를 받고 전장을 방문하였으나 전쟁당사국의 보도 통제로 국경선 인근 등에서 취재활동을 한 기자도 포함돼 있다.

<표 1>에서 드러나듯이 인터뷰 대상자 11명 중 방송사 기자는 3명이고 신문사 기자는 8명이다. 응답자의 절반이 국제부서에 속해 있었고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자경력은 평균 11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정도 취재경력을 갖춘 기자들이 전선에 파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 11명의 기자 가운데 단지 3명만이 이라크전쟁 외에 다른 전쟁이나 분쟁지역을 취재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8명은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쟁 또는 이라크전쟁을 취재한 경험이 최초의 전쟁취재 경험이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전쟁취재 경험이 풍부한 기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면접 대상자 중 3명의 기자가 미군의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5. 연구결과

1) 전쟁취재의 여건과 환경

(1) 장비와 보험 및 통역원

2003년 이라크전쟁 때 전선에 나갔던 전쟁취재기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마련해준 안전장비(안전모, 방탄조끼, 구급약, 위생용품)등을 언론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차량은 현지에서 구하거나 대여해 사용했다. 현지 생활비나 필요한 경비는 미리 회사에서 지급받거나 현지에서 사용하고 돌아와서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안전장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전쟁취재기자들은 대부분 소속 언론사에서 전쟁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주었다. 언론사에서 미리 위험지역 취재에 관한 보험이나 보상지침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보험을 의뢰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거부하여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취재했던 K기자는 취재지역이 이미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결국 아무 안전장치 없이 전쟁터로 갔다.

기자들은 현지 통역을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답했다. 가령,

F기자는 통역을 구하는 데 하루 100~150달러 정도 지불했다. C기자는 전쟁 전에 현지에 체류해 중동지역의 언어와 생활습관을 배운 경험이 있었고 본래 그 지역 언어인 아랍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했으나 사투리와 빠른 어투로 알아듣기 쉽지 않아 현지 통역을 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I기자는 취재활동을 할 때 전쟁복구활동을 벌였던 협력업체가 함께 있었고, 지역 사투리가 심해 영어와 지역 언어가 동시에 가능한 사람을 그 협력업체 사람들과 함께 고용했다고 말했다. K기자는 “전쟁취재의 중요 열쇠는 결국 돈이다. 당시 파키스탄에서 고위 장성이나 탈레반 고위 인사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이 들었다. 나도 탈레반에 정통한 파키스탄 고위 장성을 인터뷰하려 했는데 3,000달러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했다. 내가 묵었던 곳에서 한 일본 방송사가 인터뷰를 위해 5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취재가 안 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 기사 및 뉴스 전달 수단

대부분의 신문사 기자들은 위성전화를 사용해 기사를 송고했다. 위성전화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디서든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이 되지 않을 때는 직접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들려줄 수 있어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쟁지역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취재활동을 했던 A기자는 “호텔 방에 직접 인터넷이 가능한 PC가 설치되어 있어 기사를 송고하는 데 별 어려움 없었다”며 “위성전화를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비용이 비쌌다”고 답했다.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D기자는 “국내 회사로부터 전쟁 전에 임대한 메스코라는 위성전화를 썼다. 분당 6달러라는 비싼 금액에도 요긴하게 사용했다. 사실 전쟁취재에서 병사의 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통신수단이다. 캠프 버지니아에 인터넷 라인이 하나 있었지만 군 서버 외에는 접속이 안됐다. 위성전화는 접으면 노트북 컴퓨터만 해지는 안테나를 넓게 펴서 이용했는데 본사와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체는 신비스런 느낌마저 줬다. 미군 장교들은 이것을 빌려 가족과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과분할 정도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기자 역시 인터넷이 설치돼 있는 호텔에서 기사

를 송고했다. 하지만 K기자는 아무도 조인해주는 사람이 없어 위성전화를 임대하지 못했고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만을 들고 전쟁취재에 나섰으나 전기가 끊어져 낭패를 봤다고 털어놨다. 사진부 J기자는 전쟁취재에 나섰던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현재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카메라와 필름 관리가 필수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문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방송사 기자들도 위성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때로는 화상전화를 이용하기도 했다. F기자는 “주로 임시공문을 만들어 현지 관계자를 섭외하고 현장 위주의 취재를 했다. 단, 외신 그림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씩 그 그림을 특파원 리포트에 활용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기사송고에 활용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을 때는 위성전화를 통해 뉴스를 방송사에 불러왔다. 종군취재의 경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군인 등의 촬영이 매우 힘들다. 특히 언론사를 스파이로 보는 시각까지 있어 주의해야 한다.

AP와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이동 배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07가방 두 개 크기의 화상전화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화상전화를 많이 활용했다고 말했다. C기자는 “폭격지역의 현장과 시민들의 인터뷰 모습을 캠코더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 현지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하기도 했고 촬영한 내용을 위성으로 송출했다. 전화로 연결해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라크의 경우 전쟁발발 전에는 제한된 PC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미군 공격 후 인터넷이 중단됐었다. 미군이 진주하자 다시 인터넷이 복구되기도 했다. 직접 촬영하는 것이 흥미 있었고 어떤 관점에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느꼈다”고 답했다.

이처럼 위성전화와 화상전화는 전쟁취재기자들에게 본사와 교신할 수 있는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제약요인

(1) 전쟁 당사국의 통제

앞서 논의했듯이, 언론통제는 전장에 파견된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한 제약요인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쟁취재기자들 역시 대부분 전쟁 당사국의 통제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지역에 아예 접근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접근했다가 오해를 받아 위협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A기자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 기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실정이어서 취재를 위한 접근은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아 같은 동북아 국가이면서도 한국과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고 전했다. 그는 “쿠웨이트는 전쟁당사국이 아니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통제가 더 심했다. 한번은 유전시설을 찍은 것뿐인데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제로 빼앗으려고 했고 그 와중에 메모리를 슬쩍 빼돌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D기자는 “미군과 같이 다니면 사실 취재를 못한다. 실제로 전체 중군기자가 그런 한계 속에서 움직였다. 이동과 취재에 관한 모든 문제는 부대 사령관이 결정하게 돼 있었고 이라크인과의 접촉도 금지됐다”고 미군의 언론통제를 지적했다. E기자는 “쿠웨이트의 경우 정유시설조차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다. 미군부대로의 접근은 애당초 어려웠다. 선별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미군부대 방문을 위해 취재진이 경쟁을 벌일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C기자는 “이라크에 입국을 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취재 통제에 부딪혀야 했다. 공보부가 감시하는 호텔에 묵어야 했고, 취재 때는 반드시 공보부 관리(감시자)가 취재팀을 동행했다.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통제구역이 많았고, 촬영을 못하게 통제하는 건물도 많았다. 심지어는 사담 후세인 궁전 등 보안 시설이 있는 곳에서 취재를 할 경우 공보부 감시자가 카메라 앵글을 들여다보고 배경 화면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을 받고서야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의 엄격한 통제 상황을 전했다. C기자는 이어 ‘취재 허가를 받지 못한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현지 보안 경찰에 붙잡혀 심문을 받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는 피격된 건물을 촬영

하던 중에 공보부 감시자에게 카메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아파들의 시위 취재를 하다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이라크 경찰관을 촬영하던 중 시위대가 촬영테이프를 내놓으라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못 내놓겠다고 버티자 거의 공격을 할 태세였는데, 현지 성직자의 중재로 간신히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취재 중 위험물 소지자로 오인을 받아 미군에 억류돼 있었던 경험을 한 F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더 생생하게 털어놓았다.

2003년 4월 이라크 취재 중 숙소인 팔레스타인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검문을 하는 미군 개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고 주저앉았다. 화약 등의 이상 냄새를 감지했을 때 보이는 행동인데 이로 인해 취재기와 카메라 기자 등 3명은 모두 미군에 구금되었다. 외신기자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구금시켰다. 우리는 미군의 고압적 자세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출했다. 카메라가 폭탄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미군 숙소까지 끌고 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 최종 확인절차를 거치기까지 사과도 없었다. 주민이나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무작정 트럭에 싣고 수용소에 가두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라크 주민의 미군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군들은 작전 시 주민들의 집안을 군화를 신은 채 들어가는 것은 예사고 시위진압이라는 명분하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작정 트럭에 싣고 가서 수용소에 가두고서는 그들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며칠을 그대로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덧붙였다. G기자는 “전쟁이 나면 일단 인접국으로 가서 국경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프간전쟁 때는 파키스탄, 이라크전쟁 때는 쿠웨이트와 요르단으로 먼저 진입하였다. 그러나 인접국에서는 자국 국경을 통해 취재진이 들어가는 데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한다. 간혹 뇌물을 주거나 경비대를 피해 잠입하는데 실제 그런 시도를 몇 번 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H기자는 “차량폭탄 테러가 난 바그다드 시내 취재 시 미군의 통제로 주변 취재에 그친 적이 있고 아프간전쟁 당시에는 파키스탄

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음성적 루트로 몰래 넘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기꾼에 걸려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은 했으나 사실상 전쟁은 지속되고 있던 2003년 5월경 이라크를 방문했던 I기자는 “전쟁이 끝난 후 그곳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기나 연료 같은 기본 인프라도 없어졌다. 미군은 주변지역에 아예 철조망을 치고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내가 갔을 때는 미군의 통제도 통제였지만 이라크 주민이나 군인의 폭탄테러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2) 비자발급 및 교통문제

교전국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기자들의 현장접근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입국비자를 발급받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전쟁 발발 이후에도 그렇지만 전쟁 직전에도 비자발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종전 선언 이후 이라크를 방문했던 I기자와 자주 중동 지역의 전쟁과 전투를 취재해 미리 비자를 발급받았던 C기자,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사의 기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혼란을 틈타 현장에서는 비자발급 브로커들이 생기기도 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사기꾼도 많았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C기자의 경우도 중동의 여러 지역을 취재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는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또 어떤 곳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는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으며, 전쟁취재의 경험을 살려 알음알음 알아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자를 받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F기자는 “전쟁취재의 핵심은 비자이며, 특히 이라크의 경우 전쟁 전과 전쟁 과정에서 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현지취재를 못한 언론사가 많았고 따라서 많은 비자 브로커가 발생하는데 1인당 비자를 얻는 데 5천 달러를 요구하는 브로커까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기꾼이다. 모든 것이 체계가 없는 것이 전쟁 상황이니만큼 순간순간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쟁취재다”라고 밝혔다. 반면 H기자는 회사에서 해결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비자발급 외에 전쟁취재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 거리를 이동할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전쟁취재기자들은 교통문제로 가장 큰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더운 날씨와 기후 탓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통제 때문에 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취재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라고 대답했다. A기자는 “차량은 렌트했고 직접 운전할 때도 있었고 기사를 고용할 때도 있었다. 차량에 필요한 휘발유가 현지에서 매우 귀한 물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휘발유가 없으면 어디에서 발이 묶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식량보다 더 중요한 물품이었다. 휘발유 때문에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특히 스틱면허가 있어야 했다. 대사관에서 차를 빌리기도 했지만 영똥하게 현지 경찰에게 붙들려 조사를 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다”고 경험을 전했다. C기자는 운전기사를 현지에서 고용했는데 하루에 100~150달러가 들었으며, 취재를 위해 머물던 지역 외에 다른 지방 취재를 갈 때 장기 고용한 운전기사를 동행했다고 말했다. F기자는 “현지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했다. 국경 근처에서 활동할 때 인근 국가의 섭외를 통해 현지에 들어갈 경우 현지 사정에 매우 어둡기 때문에 가급적 현지에서 차량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3) 한국 언론과 외국 언론의 전쟁취재 환경 차이

한국 기자들이 처한 전쟁취재 환경과 외국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지원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유럽의 경우 군사적 통제를 피해 맨몸으로 뛰어드는 프리랜서 기자나 프로듀서,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비교적 공정한 시각으로 생생한 취재를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험에 처한 경우도 많았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취재기자나 프로듀서가 아닌, 현장의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판매하는 파파라치들도

있는데, 이들은 현장에 최대한 접근, 촬영을 시도하는데 위험한 상황은 비밀 비재하고 예기치 않은 폭발이나 사고에 희생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건져낸 영상이나 자료들은 수십만 달러에 거래된다고 전했다.

A기자는 “전쟁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은 보험은 물론 거대 규모의 지원팀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기자와 취재팀을 보호하는 용역회사의 지원이 있었다. 특히 미국 기자들은 수백 명이 미군 부대에 배속돼 생생하게 현장 취재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프리랜서 기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국가나 회사의 보호체계가 없이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경을 넘어 현지에 들어가 독자적인 취재를 하기도 했고, 희생자가 생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D기자는 “취재 기간 내내 당국의 발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취재가 불가능했다. 미군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임베드 프로그램의 그라운드 룰은 전력과 작전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쓰지 말 것이며, 작전에 방해되는 일을 하면 부대장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작전 위주였지 취재 위주는 아니었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는 사령부 출입도 가능했다. 서방 기자들은 미군이나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취재하려는 경향을 보여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몇몇 기자들은 서구 언론의 경우 미리 분쟁지역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는 등 전쟁취재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라크전쟁 당시 전장에 투입돼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여 실시간 보도를 하는 등 독보적 취재활동을 벌였던 C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취재의 경우 많은 경험과 요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해외 취재기자들과 많이 다르다. 신변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요령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현재 바그다드의 경우, 시아파 지역인지 수니파 지역인지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에 따라서 발언의 내용도 달라야 하고 주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이런 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헤리포드(Herford)에 본부를 둔 AKE®와 영국의 분쟁지역 취재 훈련센터 등에서 사전에 훈련 과정을 마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다.

F기자는 “취재방식이나 취재환경, 취재장비는 서방 언론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서방 언론사의 경우 철저한 준비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사의 경우 전쟁취재에 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4주 이상의 위험지역 취재와 군사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들에게만 취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K기자는 “AP통신의 경우 전세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아프간 내에 현지 경비원이 지키는 자체 숙소까지 마련할 정도였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전쟁취재기자의 수도 외국 언론과 차이가 많았다. K기자는 “파키스탄에서 만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경우 5명이 전쟁취재에 나섰고 도쿄 신문은 본사 3명 외에도 필리핀, 중국 특파원을 파키스탄에 파견했고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지역에도 비슷한 숫자를 파견해 아프간 전쟁을 취재했다”고 전했다. G기자는 강대국인 미국이 취재활동이나 보도 환경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국 언론의 취재방식을 꼬집었다.

미국은 CNN, 폭스뉴스 등을 중심으로 생생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시각이 편향적이다. 미국 방송들은 프리랜서들의 영상물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언론은 전쟁취재에 있어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다. 즉 전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담 위주로 기사를 송고하는 것이다. 일부 기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를 증명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코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그는 전쟁 자체가 취재대상이 돼야 한다며 기자 스스로가 자신을 객관화하

-
- 8) 1991년 설립된 이 단체는 기업체, 비정부기구,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위협과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교육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이라크, 파키스탄에 위치한 지부에서 위험인지 요령, 무기의 종류와 성능, 납치 시 행동요령 등을 가르치고 있다.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개선방안

앞서 논의한 대로 응답자들 대부분은 국내 전쟁취재의 환경이 열악한 편⁹⁾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첫째, 언론사가 전쟁터에 기자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점 둘째, 기자의 안전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장비도 충분치 않으며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기지는 “다른 나라의 경우 전쟁취재를 위해 전쟁취재 경험이 풍부한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 기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원자를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특파원이 활동하기도 하며, 분쟁 전문기자도 많다. 우리나라는 전쟁취재에 있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 파견하고 분쟁전문가도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체계가 아니라 전쟁취재 경험이 있는 중군기자의 확보이다”고 강조했다. G기지는 “이라크전쟁은 원천적으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원래 중군기자들은 현지사정에 밝은 특파원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는 특파원이 파견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나의 경우 특파원 경험자가 동행해 많은 도움이 됐지만 실제로 많은 특파원들은 전쟁취재의 특수성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현장취재 경험이 적은 신참 기자나 사회부 기자가 전쟁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쟁이라는 소재의 특수성은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 상당수 언론들이 ‘우리

9) 사실 국내 전쟁취재의 열악한 환경은 한국전쟁 때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경향신문 중군기자로 활동했던 이혜복(2003)은 자신의 중군경험을 회상하면서 불편했던 교통편과 통신수단, 그리고 까다로운 검열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상황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릴 수 없었다고 말한다. 즉, 군용 통신선 이용을 전혀 할 수 없어 신문사로 되돌아가 기사를 쓰거나 후방으로 가는 인편이나 차편에 원고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검열규정이 까다로워 전방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이름 없는 애국청년들의 생생한 전투모습을 후방에 전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는 것이다.

신문도 그 곳에 기사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C기자는 "전쟁이 나면 대여섯 개 팀까지 파견하는 열성을 보이다가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추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사마다 지역 전문가풀이 있다면 이들이 분쟁지역을 계속 취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사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전쟁 시가 아닌 평소에도 제3세계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시청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기자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취재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받은 적이 없고 취재요령이라는 것도 현지에서 취재진 교대 시에 구두로 간단하게 전달받는 수준이었다. 취재가 끝나고 한국에 와서도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전쟁취재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준이 고작이다. 전쟁과 관련된 취재는 취재의 어려움에 미국의 통제가 더해져 자칫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사정에 능통한 특파원을 양성한다든지, 인맥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 루트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단시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쟁취재 전에 나름대로 국방부에서 마련한 이슬람문화와 현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F기자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취재 시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취재에 있어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험지역 취재준칙'을 만들었던 본인의 소속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사상 최초로 사전 교육을 받았던 것은 하나의 선행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I기자 역시 “우리나라 언론의 전쟁취재보도에 관한 문제는 지난 91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문제였고 개선책은 시급하다.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은 막무가내 보도라는 점이다. 사실 확인도 적고 뚜렷한 보도지침도 없어 외국 언론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기자들은 전쟁취재 노하우의 공유, 취재경험이 풍부한 기자의 우선적 현장 투입, 안전교육 강화와 취재준칙의 마련 등이 이뤄져야 현재의 생색내기 전쟁보도와 체계적 준비 없는 취재관행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논의 및 결론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 기자들의 전쟁취재 환경은 서구 기자들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현황과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전쟁취재에 대한 체계적 규칙이나 노하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언론들은 전쟁취재에 관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아 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참기자나 전쟁 지역에 문외한인 기자를 전쟁특파원으로 보내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기자들의 전쟁취재는 위험하고 불충분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 기자의 말처럼 “이라크에서 취재하는 것은 마치 사방이 벼랑으로 둘러싸인 바위산 꼭대기에 서 있는 느낌”이었을 정도로 기자들은 전쟁취재에 대해 위험하고 불안한 느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신윤진, 2004 재인용).

둘째, 한국 전쟁취재기자들은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강대국이 전쟁 당사국이 되는 전쟁 상황에서 보도 제한에 부딪힐 때가 많다. 철저한 보안과 접근금지조치로 인해 생생한 취재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이러한 언론통제는 비단 한국 기자들뿐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이 전쟁취재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전쟁취재기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 경험만을 토대로 전쟁 상황을 생색내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G기자가 언급했듯이, 상당수 언론들은 갈등지역에 특파원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실정이다. 타사와의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급하게 기자들을 파견하다 보니 전쟁지역에 익숙지 않은 기자들이 전쟁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사에서 스트레이트와 해설 등 상당량의 주요 기사들을 작성하고 전쟁특파원의 바이라인을 다는 경우가 많다. 방송의 경우도 외국 통신사나 방송사의 화면을 사용하면서 본사에서 불러주는 원고를 현지에서 받아 그것을 그대로 리포트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생색내기 취재는 한국 언론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장에 파견된 기자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거시적 시각의 기사나 핵심적 사안에 근접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고 현장 스케치 기사나 기자 본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 기행문 같은 보도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신모, 2004). 이러한 취재 관행 및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의 전쟁취재기자들은 전쟁 상황을 심층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자신의 경험담 위주의 전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외국 언론에 비해 한국 언론은 전쟁 지역에 소규모의 기자단을 파견했고 대부분 전쟁취재 경험이 적은 기자들을 내보냈다. 앞서 <표 1>에도 드러났듯이, 처음 전쟁을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취재를 나선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마지못해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취재활동을 벌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자들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G기자의 언급처럼 전쟁취재는 정확한 사전정보 파악과 치밀한 취재계획,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성이 동시에 있어야 하지만 전쟁취재에 나선 기자는 회사의 압력에 떠밀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자들 스스로가 전쟁지역의 기본적 언어와 문화를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기자’ 등의 간단한 용어와 기본적인 현지 언어는 배우고 가는 것이 좋다(이진숙, 2004).

이 외에도 기자들은 현지 취재를 떠나기 전 분쟁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보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서정민, 2004). 현지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쟁에 대한 현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하고 가야 좀 더 안전하게 취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뛰어드는 언론인들의 용기와 의지는 매우 소중하지만 취재에 앞서 해당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기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유신모, 2004).

또한 언론사들이 전쟁 현장에 투입되는 특파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취재보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철저한 사전 준비,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기자 파견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보상기준을 비롯한 사전 취재원칙 마련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전쟁이나 전투, 시위 등의 현장에서 희생되거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기자들을 위해 위험지역 취재원칙과 전쟁보도준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신윤진, 2004 참조). CNN이나 BBC 등 세계의 많은 언론사들은 기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CNN의 경우 적지 적응훈련(Hostile Environment Training)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분쟁현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이진숙, 2004). 분쟁 취재기자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의 훈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기자는 파병되는 군인과 유사한 현지 적응훈련을 받는다. 영국 BBC는 해외 특파원에 대해 현지 파견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장비나 무기 상식부터 역류 시 행동 요령, 위험지역 이동 요령 등의 교육이 1주일에 걸쳐 실시되고 3년마다 2~3일간의 재교육을 받는다. 또 BBC는 11가지의 원칙¹⁰⁾을 중심으로 이라크전쟁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다. 국제기자연맹(IFJ,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위험지역 취재 가이드북 『전장에 선 기자』(한국언론재단 편)를 펴냈다. 기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10) 이 가이드라인에는 객관적 보도언어의 사용, 정보원의 명확한 명시, 보도유보 사실과 이유 공개, 전쟁 반대 시위의 보도 등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윤진(2004) 참조.

원칙들을 제시한 소책자다. 국제기자연맹은 또한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국제 뉴스안전기구(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를 설립, 언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사례에 비춰볼 때 전쟁취재에 대비한 한국 언론의 준비는 미약하다. 지난 2003년 국방부는 이라크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위해 하루 일정의 위험지역 취재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실전 교육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그만큼 국내에서도 기자의 안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취재에 나섰던 응답자들 모두가 이 같은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정부와 언론사들이 전쟁취재 환경의 개선을 위해 힘쓰는 것이 올바른 보도와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다. 따라서 한국 언론은 전쟁취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과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언론사뿐 아니라 언론단체나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도 전쟁취재기자의 현지 적응훈련과 위험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역의 실정에 밝은 전문기자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김정서(1991)의 지적처럼, 걸프전 당시에도 전쟁취재에 나선 한국 기자들은 현지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 언어 미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 결국 외국 언론의 보도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유신모, 2004). 일부 언론들이 나서서 전문기자를 양성¹¹⁾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기자의 육성 못지않게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분쟁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자 개개인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C기자의 경우 걸프전을 비롯한 4차례 전쟁취재 경험이 있으며 바그다드로 연수를 다녀오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쟁전문기자로서의 위치를 사실

11) 가령, KBS의 경우 두바이에 특파원을 뒤 중동관련 취재를 전담토록 하고 있고 중앙일보의 순회 특파원 제도를 마련, 기자들이 분쟁지역이나 주요 뉴스 관심지역으로 등장한 곳을 순방해 관련 기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상 굳혔다.

CNN 등 미국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언론의 관행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걸프전 당시 한국 언론들은 AFP, AP, 로이터 등 서방언론 보도에 주로 의존해 전황을 보도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전황브리핑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김정서, 1991). 또한 한국 언론은 이라크전쟁을 취재하면서 전쟁당사국인 미국의 보도에 의존하면서 미국 지도부와 언론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서정민, 2004). 최근 아랍사회에는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등 아랍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성방송이 급성장하고 있다¹²⁾. 특히 이번 이라크 전쟁 때 보여준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바그다드 시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미군 폭격에만 초점을 둔 CNN의 방송과 대조를 이뤘다. 따라서 보다 균형적인 전쟁보도를 위해서는 아랍 위성 뉴스 채널들의 전쟁보도를 한국 언론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평화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전쟁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편향돼 있다는 반성에 기초, 새로운 형태의 전쟁보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이은택·이창호, 2006 참조). 애너벨 맥골드릭과 제이크 린치(Annabel McGoldrick & Jake Linch)가 제시한 평화저널리즘의 몇 가지 원칙은 1) 정치엘리트와 군 수뇌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민지향적인 전쟁보도를 하라, 2) ‘악랄한’ ‘야만적인’ 등의 악의적 용어와 ‘대량학살’과 같은 감정적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라, 3) 분쟁의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라 등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전쟁 현장에 파견된 기자들이 한번쯤 새겨볼 만한 보도태도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전쟁취재 보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인터뷰

12) 우선, 이러한 아랍미디어의 급성장은 서구 미디어의 아랍사회에 대한 정보 독점을 무너뜨렸다. 또한 아랍미디어의 성장은 아랍세계가 그들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1991년 발생한 걸프전 때와 같이 CNN과 같은 서구방송사의 일방적인 전쟁 메시지 전달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대상자들이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에 국한돼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나 프리랜서 기자들을 다루지 않은 것도 주요 한계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쟁취재를 경험한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경영진이나 데스크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전쟁취재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실제 전쟁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전쟁취재 시 맞닥뜨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효과적인 전쟁취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안했다. 그동안 저널리즘 영역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한국전쟁 취재와 전쟁보도 등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쟁저널리즘에 대한 연구가 한층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본다.

Ⅱ 참고문헌

- 김우성 (2005). 『베트남 참전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1965~1973년 정부, 의회, 군사자료와 조선일보를 통해 본 베트남전쟁의 사회적 현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서 (1991). 전쟁보도의 한계-외신데스크. 『신문과 방송』, 7~10.
- 남재일 (2004). 『이라크전쟁보도의 프레임과 담론』.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종인 (2006). 『국익과 진실보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선기 (2005). 『인터넷언론의 ‘미국-이라크’ 전쟁 보도 경향과 담론구조: 오마이뉴스 보도의 시간구조와 담론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학술대회 논문.
- 변동현 · 박홍수 · 김영기 (2000). 한국전쟁말기 휴전협정에 대한 한 미 신문의 사실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4호, 182~210.
- 서정민 (2004). 두 가지 이상 통신수단 지참해야. 『신문과 방송』, 398호, 18~21.
- 서정우 (1991). 한국 언론의 국제보도에 관한 분석. 『연세논총』, 27권 1호, 59~72.
- 송종길 (2003). 전쟁취재보도의 한계와 문제점. 『관훈저널』, 87호, 11~18.
- 신윤진 (2004). 이라크 파병과 중군 취재: BBC는 의무화 전문가관에 위탁. 『신문과

방송』, 398호, 26~31.

안민호 (2003). 전쟁 저널리즘의 몇 가지 쟁점들: 이라크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교육 과학 연구』, 6권 2호, 47~62.

안병찬 (1999). 『저널리즘 강의』. 서울: 나남.

_____ (2003). 전쟁보도와 국익. 『관훈저널』, 87호, 19~29.

유세경·김미라 (2002).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 테러 뉴스 보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165~198.

유신모 (2004). 국내언론의 전쟁보도. 『관훈저널』, 92호, 274~280.

이은택·이창호 (2006).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이진숙 (2004). 이라크 파병과 종군 취재: 사제 폭탄에 각별한 주의. 기본적인 언어 · 문화 숙지를. 『신문과 방송』, 398호, 15~18.

이창호 (2006). 『전쟁 저널리즘: 이라크전쟁은 어떻게 보도되었나?』(3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혜복 (2003). 6·25 남침과 종군보도. 『관훈저널』, 87호, 30~40.

정문태 (2004). 『전선기자 정문태 전쟁취재 16년의 기록』. 한겨레신문사.

최효찬 (2002). 『테러리즘과 미디어: 테러를 둘러싼 미디어 이용전략과 사례 (개정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 『이라크전 TV보도 분석』.

황인성 (2004). 텔레비전의 미·이라크전쟁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44~167.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5.

Bloch, Y., & Lehman-Wilzig, S. (2002). An Exploratory Model of Media-Government Rel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U.S. Involvement in Bosnia 1992-1995. In E. Gilboa (Ed.), *Media and Conflict: Framing Issues Making Policy Shaping Opinions* (pp. 153~173). Ardsley, NY: Transnational Publishers.

Burnett, J., & Arnot, B. (2003). Embedded/unembedded II.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y/June, 43~44.

Corcoran, F. (1992). War Reporting: Collateral Damage in the European Theater. In H. Mowlana, G. Gerbner, & H. I. Schiller (Eds.), *Triumph of the Image:*

The Media's War in the Persian Gulf: A Global Perspective (pp. 106~117).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Dickson, S. H. (1992). Press and U.S. Policy Toward Nicaragua, 1983~1987: A Study of The New York Times and Washington Post. *Journalism Quarterly*, 69, 562~571.

_____. (1994). Understanding Media Bias: The Press and the U.S. Invasion of Panama. *Journalism Quarterly*, 71, 809~819.

Fahmy, S., & Johnson, T. J. (2005). "How We Performed": Embedded Journalists'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s Covering the Iraq Wa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2), 301~317.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Kellner, D. (1993). The Crisis in the Gulf and the Lack of Critical Media Discourse. B. S. Greenberg & W. Gantz (Eds.), *Desert Storm and the Mass Media* (pp. 37~47). Cresskill, NJ: Hampton Press, INC.

O'Heffernan, P. (1993). Sobering Thoughts on Sound Bites Seen 'Round the World. In B. S. Greenberg & W. Gantz (Eds.), *Desert Storm and the Mass Media* (pp. 19~28). Cresskill, NJ: Hampton Press, INC.

Paletz, D. (1994). Just Deserts? In W. L. Bennett & D. L. Paletz (Eds.), *Taken By Storm: The Media,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in Gulf War* (pp. 277~29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ese, S. D. (2004). Militarized Journalism: framing dissent in the Gulf Wars. In S. Allan & B. Zelizer (Eds.), *Reporting War: Journalism in Wartime* (pp. 247~265). New York: Routledge.

Reese, S. D., & Buckalew, B. (1995). The Militarism of Local Television: The Routine Framing of the Persian Gulf War.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 40~59.

Smith, T. (2003). The Real-Time War: Hard Lessons.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y/June, 26~28.

Streitmatter, R. (1997). *Mightier than the Sword: How the News Media Have Shaped American History*. Boulder, CO: Westview Press.

Yang, J. (2003). Framing the NATO Air Strikes on Kosovo Across Countries: Comparison of Chinese and US Newspaper Coverage. *Gazette*, 65, 231~249.

(최초 투고 2007. 8. 30, 최종 원고 제출 2007. 10. 31)

A Study on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War Reporting by Korean Press

Chang-Ho Lee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Young-Mi Lee

Ph.D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rt, Sejong University

Jong-Suk Jung

Ph.D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rt, Sejong University

Yong-Kil Kim

Ph.D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rt,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brief history of war reporting by Korea press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war coverage suggested by journalists who have experienced and covered the war. Although Korea press had 50 year war reporting history, it lacks knowhow about war reporting and systematic support for war coverage. Its main reason is that Korea press tend to dispatch war correspondents habitually without training them sufficiently. In addition, war journalists cover the war based on their environment and personal experiences. Dispatching journalists who have few experiences in war reporting to conflict region is another problem of war reporting by Korean press. To overcome these problems, Korea press need to manage journalists' pool who are well informed of or accustomed to Islam

culture and region. Cultivating experts who are familiar with international issues or troubles are also necessary for vivid war reporting.

Key words: War Journalism, Propaganda, Embed Program, Iraq War, Gulf War